

고품질 돈육, 돼지 운송이 좌우

미국돈육협회, TQA 매뉴얼 운영으로 스트레스 최소화



1,300만달러로 특히 멩이 들어서 버리는 고기로 인한 손실액만 매년 8백만달러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미국돈육협회(NPPC)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이 제도로 인해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PSE육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TQA 매뉴얼 프로그램에 따르면 돼지를 도축장까

동물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 운송이 돼지고기의 품질 차이를 크게 좌우한다는 지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양돈수의사회(회장 강화순)은 지난 11월 29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박수진 수의사는 미국에서는 TQA 프로그램을 통해 돼지 스트레스 발생요인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육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PQA(돈육품질인증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는 TQA(Trucker Quality Assurance, 운전자교육인증)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트럭운전자가 돼지고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돈육산업이 매년 돼지고기 품질저하로 입는 손실액이 2억

지 운송할 때의 운전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돼지 상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운전자의 윤리규정으로 ▲장비 ▲운전자의 의무 ▲동물취급 ▲권고사항 등 TQA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출하대는 조절이 가능하다면 경사를 25도 또는 그 이하로, 조절이 불가능한 출하대 경사는 20도 또는 그 이하로 할 것을 강조, 이외 수송시 권장 수용밀도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할 것 등을 지적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는 이번 발표가 국내 가축 사육이나 운송·도축과정에서의 변화의 단초를 가져올지 주목할 만하다. **양돈**